120725 직할교구 주지연수교육

인 사 말

수행과 포교에 진력하시고 종무행정을 선도하는 직할교구 주지스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무루 참석하신 것은 종무행정의 발전을 위하고 종단 현안을 지혜롭게 헤쳐가는 동력이 되어 줄 것입니다.

올해는 한국불교가 조계종단이라는 현대적인 교단체제로 출범한지 5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그동안 한국불교는 오늘에 이르도록 이 땅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민족의 희로애락을 함께 해왔습니다. 현대에는 고도성장에 따르는 사회적 역할도 다변화 되어 왔습니다. 특히 지역의 문화를 선도하고 정신의 의지처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은 물질에 반하는 정신의 영역과 인성을 중시하는 시대의 흐름과 연관한다고 할 것입니다.

불법홍포는 물론 이러한 현시대의 요구를 풀어가면서도 사찰의 경제마저 직접 이끌어왔지만, 주지의 원력과 헌신만으로 사찰운영의 전부를 직접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현실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사찰운영의 전반은 인지하고 관리하시되 일정 영역에서 책임있는 종무원과 신도를 통해 구현하는 것은 사찰과 스님의 역할을 더욱 원활하게 하고 현실의 문제에 대응하는 방편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 간 사찰과 종단 운영에서 빚어진 여러 시행착오와 부작용은 급속으로 변화한 시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7일 '제1차 쇄신계획'을 발표하였고 이와 연관하여 제190

회 중앙종회는 소위 쇄신입법이라 불리우는, 현재와 현실을 아우르는 제도를 통과하였습니다. 사부대중 공의를 통한 종단과 사찰의 운영, 공명선거의 실현, 승단의 청정성 회복 등을 구현해 잘못된 관행을 자성하고 종단운영상의 구조적 취약점을 점진적으로 쇄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참여란 함께 한다는 것으로 단순히 물리적인 동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소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종무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할교구에서는 앞으로도 여러 스님들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소통하겠습니다.

총무원은 '소통과 화합'을 기본으로 종단 쇄신을 위해 물러섬 없이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도 소통의 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종단 운영의 근간인 '소통과 화합'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주지스님의 참여에서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아울러 도심포교에 대한 여러분의 지속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한국불교의 내일은 어린이, 청소년 불자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직할교구도 도심포교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불기2556(2012)년 7월 25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